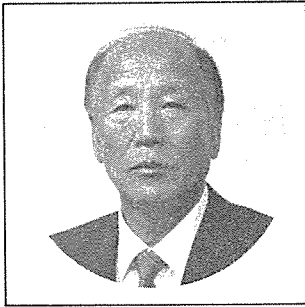


韓國科學技術院

“세 캠퍼스로 移轉
第2跳躍期 맞는 해”



李 相 洙 院長

새해는 지난해 과학기술대학과의 통합으로 다져진 학사, 석사, 박사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과학영재 교육체제를 확립, 발전시키고 완공단계에 접어든 대덕연구단지내 새 캠퍼스로 이전을 시작함으로써 한국과학기술원의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는 해가 될 것이다.

1990년은 한국과학기술원이 설립 20년(1971년 한국과학원(KAIS)으로 출발)을 맞이함으로써 20년간 축적된 교육, 연구능력과 국제적인 공인을 바탕으로 “세계속의 KAIST”로 비약하는 해가 될 것이다.

연구중심대학원, 대학원중심대학 위치확보

한국과학기술원은 이제 그동안 쌓아온 국제적인 공신력을 바탕으로 미국 Caltech이나 영국의 Imperial College와 같이 세계적 수준의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독특한 운영시스템인 “연구중심대학원”, “대학원 중심대학”으로써 확고한 위치를 다지게 될 것이다.

통합운영체제 강화

1990년에는 과학기술대학과의 통합에 따른 학사, 석사, 박사로 이어지는 일관된 통합교과과정의 운영과 연구실험실 및 실험실습 장비의 공동활용 등 실질적인 통합운영체제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과학영재교육을 체계화하고 아울러 축적된 교수연구력을 보다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

다.

또한 박사과정 중심의 질 높은 교육과 연구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이미 박사과정 319명, 석사과정 611명을 포함하여 총 930명의 신입생을 모집했다.

박사과정 중심 이공계대학원으로 정착

특히 금년에는 처음으로 200명선을 넘는 박사를 배출하게 되어 박사과정 중심의 이공계 대학원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며, 1990년 한해동안 배출되는 석사 이상의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750명선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어 고급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국가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과학기술원 졸업생의 활약이 더욱 크게 돋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연구 공동이용기관으로 발전

아울러 한국과학기술원을 21세기를 향한 첨단 기초과학과 첨단기술 연구의 중추적 마당으로서 전국 대학 학술연구 공동이용 기관으로 개발 발전시킬 계획이며, 국제적학술 및 연구활동의 강화, 최신 과학기술 정보교류 등 국제학술활동의 다각적 전개와, 산·학·연의 협동체계 강화를 위하여 1991년도 설치예정인 전문석사과정의 준비작업도 금년 상반기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우수한 교수와 학생의 확보, 교육·연구장비의 보강, 그리고 대형·복합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여 명실공히 고급인재양성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연구개발의 독보적 산실로서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교육연구기능 강화

교육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교수의 계속적 확보 및 비 전임직 교수를 적극 활용하고 교수 해외연구연가의 확대실시, 명예교수제도 적극활용, 국제 겸직교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교육여건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대 교수비율을 현행 13명에서 1990년에는 10명으로 낮추고, 교수 기본연구비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연구시설 및 기자재를 계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라믹공학, 항공우주공학, 응용물리학, 통신공학, 분자생물학 등 첨단 과학기술에 부응하는 학과의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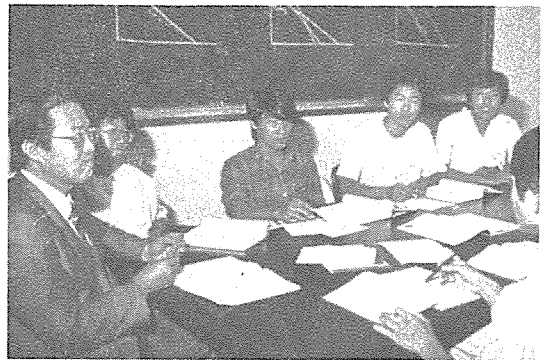
14개 주요 연구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첨단 기초연구 및 대형 복합연구수행으로 연구중심 대학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계약 목표를 70억원 이상으로 잡고 있다.

금년도에 수행할 주요 연구분야는 신소재(예 : 고온 초전도기술개발), 자동화기술(예 : 로봇트 시각 아키텍처), 신금속기술(예 : 용접가능하고 방탄성능 우수한 고장력AI 합금개발), 컴퓨터(예 : 병렬처리 슈퍼컴퓨터개발), 반도체(예 : SOI / 3차원 집적회로 기술개발), 통신(예 : 영상 정보통신 기술개발), 의료전자(예 : 초음파 3차원 영상진단장치), 천문우주(예 : 실험인공위성

Korsat-EI 개발), 정밀화학(예 : 항 바이러스물질, 핵산의 창출), 에너지(예 : 고체전해질형 연료 전지 개발), 건설(예 : 고층건물의 내진해석 및 설계기법의 개선과 전산코드개발), 생명공학(예 : 신규의약품의 생물학적 창출), 환경(예 : 상수 수질보호를 위한 종합관리 대책방안 및 처리기술개발) 등이다.

또한 “영상전화용 영상부호화 시스템”등 한국과학기술원이 개발한 연구과제에 대한 기업화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덕캠퍼스로 이전시작

한편, 1987년에 기공식을 가진 대덕연구단지내 한국과학기술원 캠퍼스 건설사업도 그동안 순조로이 진행되어 현재 85%정도의 공정이 이루어졌고, 1989년에 이어 계속적인 건물공사와 마무리 공사를 수행할 것이며, 오는 2월부터 대덕캠퍼스 확충 이전 사업이 시작되어 석사과정 신입생들에 대한 강의가 3월부터 대덕캠퍼스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한국과학기술원전경

